

15번째 시집 발간

서정주

황수영

연구 총정리 작업

팔순 아랑곳 "아직 현역"



<불교와 미술>을 시작으로 5권의 전집을 발간한다. 이 책은 황박사의 팔순을 기념, 후학들이 마련한 <초우 황수영박사전집> 전(全) 5권중 첫번째로 출간되는 것. 특히 이 <불교와 미술>은 광복직후 황수영박사가 주관했던 각 불교유물

<한국의 불상>에는 삼화출판사에서 출간했던 <한국불상의 연구> 등이 실리며, <한국의 불상 下>에는 반가사유상에 관한 논문들과 불국사, 석굴암 관계 글들이 주로 포함된다. 불상외에 사경 탐과 공예 등 불교미술에 관한 연구물들은 <불교미술>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된다. 또한 <금석문>편에는 황박사가 그동안 수집했던 각종 불교관련 금석문들을 고스란히 엮어낸다.

/ 물 주고나서//무심코 눈주어 보는/ 매화 꽃 피는/한 봄날의 햇살이어// 도로아미타불의/도로아미타불의/그 특히 빛나는/내 햇살이어' <도로아미타불의 햇살>에서 시인은 일상적인 삶의 단상들을 불교적 정서로 풀어낸다.

'한국의 불상' '금석문' 등 5권 <초우전집>

또한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선운사 부근의 고향과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꼬리야담하던 여우이야기, 초등학교 시절의 첫사랑이었던 여선생님 등 이러한 유년시절의 추억을 시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한송이 모란꽃'에서는 자신의 생사관을 그대로 투영시켜 세속을 초월하는 대자유인의 경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 황수영박사의 전집 발간과 서정주시인의 시집은 불교계 두 원로들의 평생의 연구업적을 한데 묶고 또 농익은 내면을 새롭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결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은자 기자

80소년... 93년 이후 작품 44편 수록

미술사학과와 시문학계의 최고봉이면서 '원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왕성한 현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초우 황수영박사(80)와 미당 서정주시인(83). 각자의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이룬 두 거목이 그간의 연구를 총정리한 전집과 15번째 시집을 발표한다.

불상, 탐과 연구의 권위자로 우리나라 미술사학계를 대표해 온 황수영박사(전 동국대 총장)가 다음달 초

발굴과정과 에피소드 등 황박사의 풍부한 발굴 경험속에서 녹아나 있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이들 시작으로 연말까지 <한국의 불상 上>, <한국의 불상 下>, <불교미술>, <금석문> 등 5권을 차례로 펴낼 계획이다.

이들 책에는 그동안 황박사가 <고고미술> 등 각종 학술지에 발표했던 논문들은 물론, 미발표 논문들까지 함께 수록한다.

출판소식

고전자료센터 운영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장기영)은 개인이나 서원, 사찰 등에서 소장한 고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수집하기 위해 '한국고전자료종합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02)535-6306

'전등록' 번역 출간

1700페이지에 수록된 선종 최고의 고전 <전등록>이 바로보인 출판사에 번역 출간된다.

이 책은 송나라 도원의 원저 30권 가운데 제1권에서 제8권까지를 한권으로 발간하고, 나머지 제9권에서 30권까지를 원문과 함께 전 5권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사찰 그속에...' 재출간

91년 교보문고에서 출간돼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한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원장의 <사찰, 그속에 깃든 의미>가 6년만에 도서출판 효림에서 새롭게 재출간됐다.

동양미술대전집 발간

한국과 중국의 미술사를 그림을 곁들여 총정리한 <동양미술대전집>(총 8권, 아트파크)이 발간됐다.

경희대 최병식교수(미술교육)가 집필한 이 책에는 한국편 4백여 작가 1천여점, 중국편에는 7백여 작가 1천4백여점의 작품이 실려있다.

서점가 류시화 열풍

'...101가지 이야기' 등 4권 인기 꾸준



요즘 서점가를 휩쓰는 베스트셀러를 눈여겨 보면 한 작가의 이름이 유난히 눈에 띈다. 시인이자 명사기인 류시화 씨다. 류씨가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기위해 번역했다'는 번역서<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1, 2>(이레)는 작년말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진입, 출간 1위를 지켜오고 있다. 얼마전 제3권을 출간했다. 여기에 <하늘 후수로 떠난 여행>(열림원), <외박이 물고기의 사랑>(열림원),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리다>(푸른숲) 등도 베스트셀

러 수위에 올라있다.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책들은 모두가 인스턴트 문화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작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과 마음의 성장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해 최근의 명상서적 붐에 일조를 하고 있다.

<마음을 열어주는...>는 명상가로서의 류씨의 간결하고도 개성있는 문체가 번역에 그대로 투영돼 가족과 사람의 훈훈함을 느끼게 한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하늘 후수로...>은 류씨가 지난 10년동안 인도 티벳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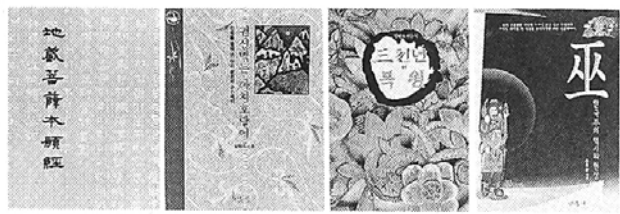
을 여행하며 만나고 체험했던 낯낯의 일들을 에피소드식으로 모아 엮어낸 잔잔한 감동을 안겨준다.

시집 <외박이...>와 <그대가...> 또한 하나하나의 시어가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잠시 명상에 잠길 여유를 제공하는 심오하면서도 편안한 시집으로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은>

새로운 책

▲지장보살본원경=1492년 중국 신종황제가 직접 쓴 지장경 원문을 실은 사경서. 이 책은 각 품에 대한 한글 번역문도 실었으며, 올바른 지장경 사경을 위한 참회와 발원의식도 첨가했다. <양진원 1만원>

▲귀신먹는 까치호랑이=민화 전문가인 김영재씨가 민화를 하늬 그림, 땅 그림, 사람 그림으로 나누어 그림에 담긴 우리민족과 우리민족의 원형을 찾아 민화를 재해석했다. 이 책에는 정동발화의 구도와 상호에 연연하지 않고 그려진 문수보현도와



보살신중도 등 자유로운 표현으로 그려진 '만유만민의 민불화'도 소개하고 있다. <들녘 1만2천원>

▲3천년의 복원=제7회 불이상을 수상한 제천 진주동물병원장 김연호 씨의 산문집. '초롱꽃에 피운 기일' '수의사의 봄날일기' '생물어의 향

수' '발우공양의 정신' '3천년의 복원' '마음을 편안하다' 등 불자로서 수의사로서 살아온 삶에 대한 편린들을 담았다. <대흥기획 6천5백원>

▲한국의 자생풍수 1·2=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였던 최창조씨가 우리나라 풍수 연구에 몰두해 온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모았다. 한국풍수의 비조 신라말 도선스님의 풍수사상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 풍수사상의 뿌리를 캐고, 그 특질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방대한 자료섭렵과 현지답사를 토대로 전국 각 마을들을 풍수적으로 해석, 사진적으로 정리했다. <민음사 각권 2만3천원>

▲한국무의 역사와 현상=단군 이래 부여, 고구려 등 고대무의 종교적 체계를 살핀 책. 고려시대 팔관회와 연등회를 중심으로 한 무불합함을 거치면서 왕실과 민중속에서 신앙되었던 한국무의 역사와 제반 현상에 대해서 여러사료를 통해 연구, 검증하고 있다. <민족사 8천5백원>

향가설화에 담긴 불교사상 분석

향가설화문학

홍기삼 지음

삼국유사에 담긴 설화 가운데 향가 설화라고 불리는 '수로부인', '처용랑 망해사' 등 12편의 설화를 대상으로 종교적,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향가 설화문학을 재조명했다. '효소랑대 죽지람'은 불교적 윤회전생의 사상을 담고 있으며 '분향사 천수대비 맹아득인' 설화는 불교의 예배대상인 탐과 불상의 유래와 수용 등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



자 홍기삼교수(동국대 국문과)는 설명한다. 홍교수는 향가 관련 설화들의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 전설장르의 특성을 존중하는 해석과 분석방법을 탐색하고 있 으며, 더불어 설화를 통해 한국 고대의 불교가 무속신앙을 비롯한 여타의 신앙이나 종교에 대해 서도 개방적이고 절충적 이었음을 고찰한다. <민음사 2만5천원>

화제의 책

종단·사회문제 등 다룬 테마카탈럼

대중공사

남현 지음

불교계 내의 각종 제도에서부터 남부관계, 미라사회, 민족과 민족, 제 반사회문제 등을 하나의 논제로 삼아 불교의 역할을 망라한 테마형식의 이 칼럼집은



한 지론을 제시한다. 스님은 특히 조계-태고 분규사찰문제, 불교방송 문제 등 불교계의 현안문제들을 비롯 한보사태, 노사갈등, 대권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현 실까지도 날카롭게 짚어 낸다. 이같은 글들을 통해 스님은 21세기 문명사적 변화의 수용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교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서평 8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사신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현준	효림
2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3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의의 지혜	유필화	한인
4	한국사찰음식	김연식	우리출판사
5	삶은 꿈가 아니다	혜원	여시아문
6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혜원	가람기획
7	일자로 가는 길	정찬주	좋은날
8	불교인문	조계종포럼	조계종출판사
9	한권으로 읽는 판만대장경	진현중	동지
10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정빈	동지

구입문의:(02)737-0695

명산고찰의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30년 연구의 결실, 평생의 역작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국내 최고의 사찰음식 연구가 김연식의 30년에 걸친 자료 수집과 연구의 결실인, 15년간의 술회를 담은 한국 주요 사찰의 조리법을 익힌 저자의 피와 땀으로 엮은 평생의 역작.

한국사찰음식의 주옥편

이제까지의 신원이나 여성지, 여성백과나 요리백과에서 팔각하게 소개된 사찰음식의 편편들이 아닌 우리나라 사찰음식의 정수인을 모아서 육구술을 꿰뚫 정성스레 엮은 한국사찰음식의 주옥편.



저자 김연식

한국사찰음식

산사의 솔향기 가득한 유명 사찰음식 총망라

유서깊은 산사에는 독특하고 유명한 사찰음식이 전해 내려오는 법. 송광사·해인사·법어사·지자사·불국사·법주사·해인대홍사·통도사·신유사·상원사 등의 밀로만 전해 온 유명 사찰음식 220여 가지를 체계적으로 분류, 요리법과 생생한 컬러 사진 수록.



반양장 150원 / 값 12,000원

우리출판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 Tel: 313-5047, 313-5056 Fax: 393-9696

대부도 쌍계사에서 서른 명 고아들의 아빠스님으로 살아가는 법현 스님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서·른·명·의·아·빠·법·현·스·님·의

등지마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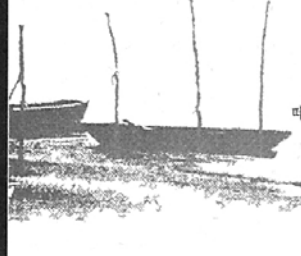
법현 지음

- 아이들은 우주의 진리를 머금은 존재
- 인생은 성물로 가는 인연을 심는 귀한 농사

'나는 인연가 큰 집을 지어서 버림받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있다.'는 소원 하나를 꾀잡이와 버스 차장을 거쳐 불공과 수행에 전념한 법현 스님의 고된 인생 역정과 '등지마을'에서 스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웃음과 눈물을 담았다.

부처님의 나라를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도를 물들이는 저녁을 아래 출렁이는 파도만이 꺼져도 넘고 넘어 몇만 나라 지난 곳에 있을까요.

따뜻한 아침, 아이들이 등교하고 난 뒤 방바닥에 어질러진 휴지 조각과 강낭콩들 그 무질서를 청소하며 아이들이 그리다 묻게되면 얼마의 얼굴 그 미완성의 그리움을 모아 부처님의 나라를 그려 봅니다.



우리출판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 Tel: 313-5047, 313-5056 Fax: 393-9696

신국판/216면/값 5,000원